

한국판 외상 후 심리적 안녕감 변화 척도의 타당화 연구†

정 아 름 김 종 남*
서울여자대학교 교육심리학과

본 연구는 외상 후 변화, 특별히 심리적 안녕감의 변화를 연구하기 위해 Joseph와 동료들이 개발하고 타당화한 외상 후 심리적 안녕감 변화 척도를 번안하여 심리측정적 속성을 확인하였다. 이후 외상 후 심리적 안녕감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자아탄력성, 외상경험 개방에 대한 긍정적 사회적 반응, 부정적 사회적 반응과의 관계성을 알아보았다. 먼저 외상으로 인해 고통 받은 성인 125명을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신뢰도를 알아보았다. 다음으로 같은 조건의 다른 집단인 성인 306명을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도출된 요인구조의 안정성과 일반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최종 2요인 16문항이 최종 한국판 외상 후 심리적 안녕감 변화척도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외상 후 심리적 안녕감 변화 척도와 개념적으로 관련된 척도들과의 상관분석을 통해 타당도검증을 실시하였고 타당성을 입증하였다. 한국판 외상 후 심리적 안녕감 변화척도는 원척도와 다소 다른 요인구조를 보였으나, 그 구조가 안정적이고 의미 있게 해석 가능했으며, 내적합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비교적 높은 공준, 수렴, 변별 타당도를 보여 척도의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타당화 된 한국판 외상 후 심리적 안녕감 척도를 이용하여 외상 후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밝혔다. 외상 후 심리적 안녕감 변화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자아탄력성, 외상경험 개방 후 사회의 긍정적 반응은 정적 상관, 외상경험 개방 후 사회의 부정적 반응은 부적상관이 있었다. 외상 후 심리적 안녕감 변화를 예측하는 요인으로는 자아탄력성, 외상경험 개방 후 사회의 긍정적 반응이 도출되었다.

주요어: 외상 후 안녕감 변화, 외상 후 성장, 타당화 연구, 자아탄력성, 외상경험 개방에 대한 사회적 반응

† 이 논문은 제1 저자의 석사학위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본 연구의 일부는 2015년 심리학회 연차대회에서 포스터로 발표되었음. 이 논문은 2016학년도 서울여자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았음.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김종남,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 621 서울여자대학교 교육심리학과, Tel: 02-970-5561, e-mail: kimjn@swu.ac.kr
논문과정에 도움을 주신 양귀화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부로부터의 크고 작은 사건에 의해 상처를 경험하고 저마다 다양한 반응을 보인다. 어떤 사람들은 극심한 스트레스 사건을 겪은 후 외상 후 스트레스 반응(Posttraumatic Stress Response)을 비롯하여 심각하고 지속적인 부정 정서를 경험한다. 매우 심각한 경우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와 같이 개인의 내적 조절 과정과 인지적 통합 과정이 붕괴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박예슬, 2013). 이는 교감신경계, 내분비계, 인지능력, 정서, 성격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외상에 대한 병리적인 재 경험, 외상과 관련된 단서 회피 또는 일반적인 반응의 마비, 과도한 각성상태, 자아 정체감의 혼란, 대인관계와 애착관계 등의 부정적인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Wilson & Keane, 2004).

하지만 다행히도 부정적인 반응에서 곧 회복하고 더 나아가 개인 삶의 질을 성장시키는 사람들도 있다(Tedeschi & Calhoun, 2004). 학자들은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를 외상 후 성장(Posttraumatic Growth; Tedeschi & Calhoun, 1996), 역경 후 성장(adversarial growth; Linley & Joseph, 2004), 이득의 해석(construing benefits; Affleck & Tennen, 1996), 지각된 이득(perceived benefits; McMillen & Fisher, 1998), 스트레스 관련 성장(stress-related growth; Park, Cohen, & Murch, 1996), 변형적 대처(transformational coping; Aldwin, 1994), 번영(Thriving; Abraido-Lanza, Guier, & Colon, 1998) 등 각기 다른 용어를 사용하며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국내에서도 아직 용어의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인데, 본 연구에서는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외상 후 성장’이라는 용어로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를 정의하고자 한다. 외상 후 성장은 개인이 주관적으로 지각한 삶의 위기 혹은 삶을 뒤흔드는 외상 사건(seismic event)들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여 발생한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와 부정적인 심리적 결과를 극복하고 더 나아가 발전, 성장하는 것을 의미한다(Tedeschi & Calhoun, 1996). 즉 외상 경험 후 병리적 증상의 발현 자체를 억제 혹은 완화시키거나 혹시 닥칠지 모를 또 다른 스트레스나 외상에 좀 더 건강하게 대처할 수 있는 내적 역량을 키우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외상 사건은 DSM-5에서 말하는 외상의 정의를 포함하지만 더 포괄적인 개념이다. DSM에서 말하는 자연재난, 전쟁, 테러, 강력 범죄 등의 통계적으로 비일상적 사건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신체적 질병, 화재, 이혼, 사별, 골수의식 및 암 등의 질병, 성폭력,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포함한 왕따 경험 등 개인에게 ‘인생의 위기’라 생각되는 다양한 경험들까지 모두 외상사건에 포함된다(Tedeschi & Calhoun, 2004). 외상 후 성장을 지각함으로써 외상 경험의 부정적 영향을 차단 내지 완화시킬 수 있고 심적 안정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외상 후 성장의 임상적 가치를 엿볼 수 있다(최승미, 2008).

하지만 안타깝게도 외상 후 성장에 관한 합의된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외상 후 성장을 실제로 구성하고 있는 것에 대해 명확한 이론적 개념화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초기 측정법들의 한계 역시 서서히 드러나고 있기에(Joseph, Murphy, Begel, 2012b) 외상 후 성장에 대한 더 명확한 이론적 개념화와 측정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 가지 유망한 이론적 발달은 Joseph와 동료

들(2005)의 '심리적 안녕감(Psychological Well-Being) 증가이론'으로 이들은 외상 후 그 결과로서 심리적 안녕감이 증가한 것을 외상 후 성장이라고 보았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정서-인지 처리 모형(Affective-Cognitive Processing Model)을 제안하여 기존의 생각과 가정을 새로운 정보에 맞추어 수정하는 과정을 설명하였다. 사건인지평가, 정서 상태, 대처의 순환의 과정을 따라 정서-인지 처리가 발생하는데, 외상으로 인해 이 처리 과정이 방해받게 된다면 심리·생리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고 더 나아가 외상 후 스트레스가 발생하기도 한다. 만약 부정적이고 병리적인 반응을 유지하고 있다면 심리적 안녕감은 감소할 것이고, 이를 극복하고 긍정적인 조절 과정을 거친다면 심리적 안녕감이 증가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외상 후 성장을 의미한다(Joseph et al., 2005). 외상 경험 후에 심리적 안녕감이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변하는지에 따라 외상 후 긍정적인 변화, 부정적인 변화의 여부와 그 정도를 살펴볼 수 있다.

Joseph와 동료들(2005)은 심리적 안녕감의 증가 이론에서 Ryff(1989)의 심리적 안녕감 개념을 활용하였다. Ryff(1989)는 삶의 질을 구성하는 심리적 측면을 설명하기 위해 Maslow의 자아실현(self-actualization) 개념, Rogers의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fully functioning person)에 대한 관점, Jung의 개별화(individuation) 형성 이론, Allport의 성숙(maturity)의 개념 등을 종합하여 여섯 개의 차원으로 이루어진 심리적 안녕감 개념을 제안하고 척도를 개발하였다. Ryff(1989)가 제시한 여섯 개의 차원은 (1) 자아수용성(self-acceptance)-자신의 좋은 점뿐 아니라 한계를 인지하고 수용하며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 (2) 긍정적 대인관계(positive relations with others)-타인과 따뜻하고 만족스러우며 신뢰로운 관계를 맺는 것, (3) 자율성(autonomy)-자기 결정적이고 독립적인 특성으로, 자립심이 강하고 외부의 기준보다 자신의 신념에 따라 행동하는 것, (4) 환경에 대한 통제력(environmental mastery)-복잡한 외적 행동 계획을 조절하고, 기회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줄 알며 개인적 필요나 가치에 맞게 적합한 환경을 선택하거나 변화시키는 것, (5) 삶의 목적(purpose in life)-자신의 경험을 통해 삶의 의미와 방향성을 지니고 있으며 목표를 창출하고, 이를 추구하며 사는 것, (6) 개인적 성장(personal growth)-새로운 경험에 대해 개방적이고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해 애쓰고, 지속적으로 재능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심리적 안녕감이 높다는 것은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수용하고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애쓰며, 자신의 행동을 독립적으로 조절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다. 또한 주변 환경에 대한 통제력과 삶의 목적이 있으며,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려는 성장의지가 있음을 의미한다(김명소, 김혜원, 차경호, 2001). 심리적 안녕감을 증가시키는 것은 외상 후 성장의 특징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외상 후 성장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자신과 세상에 대한 관점이 긍정적으로 변하고, (2) 대인관계에서는 친밀감과 이타적인 양상이 증가하며, (3) 인생관 역시 더 발전된 모습으로 변하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들의 일치성은(표 1), 심리적 안녕감의 증가를 외상 후 성장으로 본 Joseph와 동료들(2005)의 이론을 뒷받침하고 있다.

한편, 외상 후 성장을 측정하는 도구들은 외상

표 1. 외상 후 성장 구성요인과 부합하는 심리적 안녕감의 구성요인

외상 후 성장 구성요인	심리적 안녕감 구성요인
자신과 세상에 대한 긍정적 변화	자기 수용 개인적 성장 환경에 대한 통제력
대인 관계에서의 변화	타인과의 긍정적 관계
인생관의 변화	자율성 삶의 목표

후 성장 척도 (Posttraumatic Growth Inventory; Tedeschi & Calhoun, 1996), 스트레스 관련 성장 측정법(Stress-Related Growth Scale; Park et al., 1996), 조망변화 질문지(Changes in Outlook questionnaire; Joseph, Williams & Yule, 1993), 인지된 이익 측정법(Perceived Benefit Scale; McMillen & Fisher, 1998), 풍요 척도(Thriving Scale; Abraido-Lanza et al., 1998) 등이 있다. 하지만 대부분 충분한 타당화 과정을 거치지 못해 현재 외상 후 성장 연구에는 주로 PTGI를 사용한다.

국내의 외상 후 성장 척도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국내에 연구된 외상 후 성장 척도는 Tedeschi와 Calhoun(1996)이 개발하고 송승훈 등(2009)이 번안한 한국판 외상 후 성장 척도(K-PTGI)와 Roesch와 Rowley(2004)가 개발하고 권선중과 김교현(2007)이 번안한 한국판 스트레스 관련 성장 척도(Stress Relative Growth Scale; K-SRGS-R) 두 가지이다. 최근 여러 연구에서 송승훈, 이홍석, 박준호, 김교현(2009)이 타당화 한 K-PTGI가 아닌 원판 외상 후 성장 척도(Posttraumatic Growth Inventory; PTGI)의 문항을 사용하고 있다(김에스터; 2014, 양귀화, 김종남; 2014, 임선영, 권석만; 2013, 정인명; 2009). PTGI는 대인관계의 깊이 증가, 새로운 가능성의 발견,

개인 내적 힘의 발견, 영적·종교적 관심의 증가, 삶에 대한 감사 등 5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외상 후 성장, 즉 긍정적 변화가 많이 일어난 것을 의미한다. PTGI는 한 쪽 측면만을 평가하는 도구로서 외상 후에 겪는 부정적 변화를 도외시 하고 외상 후의 긍정적인 측면만을 측정한다는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하 점수가 의미하는 바는 단순히 긍정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일 수도 있고 혹은 부정적 변화가 있는 것일 수도 있다. PTGI의 결과로는 이를 판별할 수 없고, 그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다른 검사를 함께 시행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외상 후 성장의 측정을 위해서 긍정적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 물론 중요하지만, 부정적 변화 역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 외상 후 성장이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PTSD의 더 깊은 이해와 외상으로 인한 다양한 적응문제의 개입에 있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외상 후 성장의 추후 연구나 여러 치료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을 위해서는 긍정적, 부정적 측면 모두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효율적인 도구가 필요하다. 또한 PTGI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종교 관련 문항이 포함되어 있어 무신론자의 점수가 낮게 나오는 한계점이 있다(Regel & Joseph, 2010).

Regel과 Joseph(2010)는 앞서 언급한 자기보고식 평가 도구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외상 후 심리적 안녕감 변화 척도(Psychological Well Being-Posttraumatic Changes Questionnaire: PWB-PTCQ)를 개발하였고, Joseph와 동료들(2012a)은 이를 타당화하였다. 이 척도는 Ryff (1989)가 확립한 심리적 안녕감의 이론적 개념을 이용하여 외상 후 변화를 측정하고 있다. PWB-PTCQ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PWB-PTCQ는 심리적 안녕감의 차원과 동일하게 자아수용성, 자율성, 삶의 목적, 관계, 환경통제력, 개인적 성장 등 여섯 개의 하위 차원으로 구성 되어 있다. 각 하위 차원 당 3문항씩 총 18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5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한다. 이 후 타당화 과정에서 6개의 요인을 각각 해석하기 보다는 단일 요인으로 외상 후 심리적 안녕감의 변화 방향과 정도를 측정하기를 권하였다(Joseph et al., 2012a). PWB-PTCQ는 현재의 자신과 외상 이전의 자신을 비교하여 외상의 결과물로서 심리적 안녕감이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변했는지를 측정한다. 점수 범위는 18~90점까지이며, 54점을 넘을 경우 긍정적인 변화가 이루어진 것이고, 이보다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변화가 큰 것을 시사한다. 또한 54점보다 낮은 점수일 경우 부정적 변화가 이루어진 것이고, 점수가 낮을수록 부정적 변화가 큰 것을 의미한다. PWB-PTCQ는 외상 후 긍정적·부정적 측면을 모두 평가하는 도구로서 높은 내적 합치도와 안정성을 보이며 외상 후 성장 평가에 있어 타당한 도구임이 입증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외상 후 성장뿐만 아니라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의 필요에 주목하였

고 Joseph와 동료들(2012a)이 개발하고 타당화한 외상 후 심리적 안녕감 변화 척도를 타당화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이 척도를 번안하고 한국의 성인 표본을 대상으로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타당화한 한국판 외상 후 심리적 안녕감 척도를 이용하여 외상 후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밝히고자 한다. 선행 연구들의 결과를 바탕으로 외상 후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개인적 요인과 사회·문화적 요인을 선정하였다. 먼저 개인적 요인으로는 자아탄력성(ego-resiliency)을 선택하였는데, 자아탄력성이란 개인의 트라우마 사건이나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내·외부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적응해 나가는 역동적인 발달과정을 말한다(Luthar, Cicchetti, & Becker, 2000). 자아탄력성은 외상이나 강력한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할 때 보다 적응적인 상태로 나아가게 하는 특성을 지녔기 때문에 외상 후 성장 경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단두리, 2013). 외상 후 성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외상 사건을 견뎌내는 것뿐만이 아닌, 그 결과로서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이를 가능하게 하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Park & Hegelson, 2006). 이러한 개인의 능력으로서 자아탄력성은 상황의 특성과 개인의 행동을 적절하게 분석하는 인지적 능력들을 포괄하기 때문에 외상 사건 노출 시에 비교적 안정되고 건강한 수준의 심리적, 신체적 기능을 유지하게 하는 능력이라 할 수 있다(Bonanno, 2004). 또한 자아탄력성의 하위변인에 낙관성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으며(신우열, 김민규, 김주환, 2009), 자아탄력성이 외상 후 성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인(Nishi, Matsuoka, & Kim, 2010)이라는 연구결과들이 제시되었다. 감정적 학대 및 신체적, 성적 학대를 경험한 개인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Woodward와 Joseph(2003)의 연구에서도 외상 후 성장을 경험한 개인의 경우 자아탄력성이 높게 나타났고, 그 수준이 높을수록 더욱 건강한 성격들을 개발했으며 대인 관계를 더욱 잘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한다. 국내 여러 연구에서도 자아탄력성이 외상 후 성장을 예측할 수 있는 변인으로 밝혀졌다(김보라, 2010; 단두리, 2013; 유란경, 2012)

자아탄력성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를 검증한 선행 연구에서는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거나, 혹은 자아탄력성이 중재 변인이 되어 심리적 안녕감을 높인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김현옥, 2010; 위중휘, 조규관, 2014). 한편 자아탄력성과 외상 후 부적응의 관계를 확인한 몇몇 연구들이 있다. 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PTSD 증상(조금진, 2014)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오수미, 2014)은 자아탄력성과 부적 상관이 있음이 밝혀졌다. 하지만 가정폭력 피해여성을 중심으로 한 양계령(2008)의 연구는 자아탄력성과 복합 PTSD 사이에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자아탄력성과 외상 후 부적응을 다루는 국내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고, 선행 연구들의 결과는 일관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다시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자아탄력성과 외상 후 심리적 안녕감 변화의 관계를 밝히고, 자아탄력성이 예측 변인으로 기여하는 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한편 사회·문화적 요인은 외상경험 개방에 대한 사회적 반응을 선정하였다. 외상 사건을 경험한 사

람들은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타인과 소통을 하는데 이들 중 65~92%가 적어도 한 명 이상의 사람에게 외상 경험을 개방한다(Ahrens, Campbell, Ternier-Thames, Wasco, & Sefl, 2007). 이 때 이야기를 듣는 타인의 반응은 긍정적 사회적 반응과 부정적 사회적 반응으로 구분할 수 있고 어떤 종류의 사회적 반응을 받는지에 따라 심리적 안녕감의 변화의 방향과 크기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외상 경험자의 대부분이 타인에게 외상경험을 개방 하고 심리적 변화, 즉 적응과 성장 혹은 부적응에 중요한 요인인 긍정적, 부정적 피드백을 받는데 이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기존 연구들은 긍정적 요인과 외상 후 성장과의 관계성을 확인하는데 그치고 있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가장 많이 연구 된 긍정적 요인인 사회적 지지는 외상 후 성장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외상 경험에 따르는 고통스러운 감정을 조절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Tedeschi & Calhoun, 2006).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사회적 지지와 같은 긍정적인 사회적 자원을 받는 것은 아님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Littleton과 Breitkopf(2006)는 성폭행 경험자의 대처전략에 대해 연구에서 타인으로부터 부정적인 반응을 받을수록 회피적인 대처를 하게 되며 이는 심리적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을 밝혔다. 대인간 외상(Hassija & Gray, 2012), 스트레스 사건(Foynes & Freyd, 2012)에 대한 연구들 역시 타인의 부정적 반응은 외상 후 부적응과 관련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부정적 반응을 받은 사람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받은 사람들보다 외상 후 부적응을 보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Campbell, Ahrens, Sefl, Wasco, & Baenes(2001)이 성폭력 경험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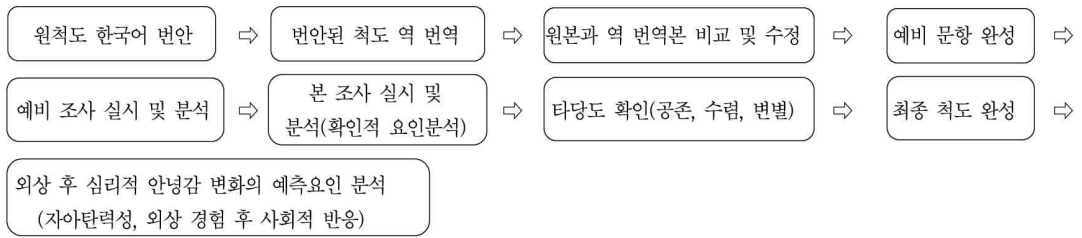


그림 1. 한국어판 외상 후 심리적 안녕감 변화척도의 타당화 연구 절차

대상으로 외상 경험을 타인과 이야기했을 때를 연구한 결과, 대부분의 경우 긍정적 반응과 부정적 반응을 모두 받지만 부정적인 반응을 받은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부정적인 사회적 지원과 관련된 연구는 김나정(2015)이 외상 경험 개방 후 사회의 부정적인 반응과 우울의 정적상관을 밝힌 것이 전부이다.

본 연구는 외상 경험 개방에 대한 사회적 반응을 긍정적 반응과 부정적 반응으로 나누어 각각의 반응과 외상 후 심리적 안녕감 변화의 관련성을 밝히고자 한다.

요약하면, 본 연구에서는 첫째, 외상 후 심리적 안녕감 변화 척도를 한국판으로 타당화하고, 둘째, 외상 후 심리적 안녕감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의 관계성을 밝히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자아탄력성과 외상 경험 개방에 대한 사회적 반응이 외상 후 심리적 안녕감 변화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를 얼마나 예측해 주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외상 경험을 한 개인이 자신의 긍정적인 변화를 깨닫고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한 임상적 활용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방법

연구 흐름도

‘한국어판 외상 후 심리적 안녕감 변화 척도의 타당화 연구’는 그림1과 같은 절차를 통해 연구를 수행하였다.

절차

번안단계. 일차로 번역 및 번역 타당화 단계를 거쳤다. 번안과정은 첫째, 본 연구자를 포함하여, 심리학 전공 박사 1인, 심리학 전공 교수 1인이 PWB-PTCQ를 한글로 번역하였다. 둘째, 영어권 나라에서 거주하며 석사학위를 취득한 심리학 박사과정 이중언어자 1명이 척도원문을 접하지 않은 상태에서 번안된 한글본을 영어로 역 번역하였다. 셋째, 모국어를 영어로 사용하는 임상심리전공 교수 1인과 교육학 전공 교수 1인이 PWB-PTCQ 척도 원문과 영어로 역 번역된 척도를 비교하면서 척도 번안의 정확성과 의미의 합치성을 4수준(‘매우 동의’, ‘동의’, ‘동의하지 않음’, ‘매우 동의하지 않음’)으로 평정하였다. 두 평정자 모두가 모든 문항을 ‘매우 동의’ 혹은 ‘동의’할 때까지

번역 및 역 번역 과정을 반복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원판 문항의 의미가 한국인에게 잘 전달될 수 있는 PWB-PTCQ 18문항과 응답양식을 구성하였다.

예비 조사 실시 및 문항재구성(탐색적 요인분석). 한국판 외상 후 심리적 안녕감 변화 척도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해 서울, 경기도에 거주하는 성인을 125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가 이루어졌다. 수집된 자료의 문항분석을 실시하였고, 문항 평균 및 표준편차, 문항-전체 간 상관, 문항 간 상관을 검토하였다. 문항의 평균이 극단 값으로 치우친 문항, 문항-전체 간 상관이 낮은 문항, 문항 간 상관이 너무 높은 문항이 있는지 살펴본 뒤 예비 문항의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해 내적합치도 (Chronbach's α)를 산출한 뒤 탐색적 요인분석 (exploratory factor analysis: 이하 EFA)을 실시하였다. 요인추출은 평행 분석을 이용한 주성분 분석과 직각회전(VARIMAX)을 활용하였다.

본 조사 실시 및 문항재구성(확인적 요인분석, 타당도). 본 연구에서는 예비조사에서 확인한 요인 구조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성인 306명을 대상으로 문항 분석 및 신뢰도 검사와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후 PTGI, 불안, 삶의 방향성, 감사성향, 정서조절, 불안, 외상 후 스트레스, 사회적 바람직성과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예측변인 분석. 예측변인 분석에서는 외상 경험이 있는 서울,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성인 225명을 대상으로 타당화 된 한국판 외상 후 심리적

안녕감 변화척도를 사용하여 외상 후 심리적 안녕감 변화의 관련 요인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관련 요인인 자아탄력성, 외상사건 개방에 대한 사회적 반응이 외상 후 심리적 안녕감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였다.

측정도구

외상 후 심리적 안녕감 변화 척도 (Psychological Well Being-Posttraumatic Changes Questionnaire: PWB-PTCQ). Joseph 와 동료들(2012a)이 개발하고 타당화한 18문항 5점 리커트 자기보고식 척도로 외상 경험 이후 심리적 안녕감 변화를 느끼는 정도에 따라 1점(사건 전에 훨씬 더 그랬다), 2점(사건 전에 조금 더 그랬다), 3점(사건 전과 현재가 비슷하다), 4점(사건 전에 비해 현재가 조금 더 그렇다), 5점(사건 전에 비해 현재가 훨씬 더 그렇다)으로 평정한다. 54점(사건 전과 현재의 심리적 안녕감 수준이 변하지 않음)을 기준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증가, 점수가 낮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감소된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내적 합치도는 .94이다.

외상 경험 질문지. 안현의와 주혜선(2012)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관련 연구 중 외상 사건의 발생 시기 및 그 유형, 외상 경험의 지속 여부, 외상 발생 당시와 최근의 주관적 고통감을 측정하는 외상 후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였다.

한국판 외상 후 성장 척도(Korean Version of the Posttraumatic Growth Inventory ; K-

PTGI). 공존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Tedeschi와 Calhoun(1996)이 개발하고 송승훈 등(2009)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외상 후 긍정적 변화를 많이 경험하였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내적 합치도는 .95이다.

삶의 지향 검사 개정판(Life Orientation Test-Revised; LOT-R). 수렴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낙관성을 측정하였다. Scheier, Carver와 Bridges(1994)가 삶의 지향검사(Life Orientation Test; LOT)를 개발한 이후에 두 문항을 삭제한 개정판(LOT-R)을 신현숙(2005)이 번안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낙관주의 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낙관성이 높은 사람은 원하는 목표와 긍정적인 결과를 향해 움직이고, 가능성이 있는 현실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노력함으로써 외상 후 성장을 경험하게 된다. 또한 외상 경험 이후에 나타나는 정서반응과 스트레스 반응에서 우울과 적개심 및 스트레스의 정도가 낮았고 감정을 통제하는 데 있어서 융통성을 보였으며 삶을 긍정적으로 지향하고 사회적으로 지지받는 경향이 나타났다(Aspinwall, Bichter, & Hoffman (2001). 이러한 낙관성의 적응적인 측면이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주는 요인임이 밝혀졌다(김미영, 김금순, 2005; 송주연, 이희경 2010; 양귀화, 김종남 2014; Buyukasik-Colak, Gundogdu-Akturk, & Bozo, 2012). 이는 낙관성 성향이 높을수록 외상 후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어 성장에 이르게 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판 PWB-PTCQ와 낙관성이 정적인 상관이 있을 것이라 예상하였다. 본 연구의 내적 합치도는 .70이다.

감사성향 질문지(Gratitude Questionnaire). 수렴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McCullough, Emmons와 Tsang(2002)이 개발하고 권선중, 김교현, 이홍석(2006)이 표준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감사는 타인에게 가치 있는 것을 받았을 때 느끼는 긍정적 정서로서(McCullough et al., 2002) 평소 감사 많이 느끼는 사람은 부정적인 사건의 영향을 덜 받아서 심리적 부적응을 덜 느낀다(김에스더, 2015). 감사성향과 외상 후 성장의 관련성을 연구한 선행연구(김에스더, 2015; 송승훈 등, 2009)들은 감사성향이 큰 사람들은 외상 사건이 주는 부정적인 영향에서도 긍정적인 의미를 찾아 적응적 대처를 하게 하여 외상 후 성장을 이끌어 내는 경향이 있음을 밝혀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판 PWB-PTCQ와 감사성향이 정적인 관련을 보일 것이라 예상하였다. 본 연구의 내적 합치도는 .91로 나타났다.

정서 조절 질문지 (Emotion Regulation Questionnaire; ERQ). 수렴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인지적 재해석정도를 측정하였다. Gross와 John(2003)이 선행사건 중심 정서조절 시기 및 반응 중심 정서조절 시기 각각의 대표적인 정서조절 전략으로 언급한 재해석 및 억제를 측정하기 위해 정서 조절 질문지를 개발하였고, 손재민(2005)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재해석 전략은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기 위해 상황을 인지적으로 재해석, 재구성하여 상황의 정서적 영향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즉 정서경험을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정서를 조절하려는 시도로서 이는 개인의 생리적 손실 없이 부정적 느낌을 감소시키는 효과적인 정서 조절 전략이다(Mauss, Crystal,

Jeniffer, & Gross, 2007). 외상 후에 이러한 인지적 재해석 전략을 사용하여 긍정적 방향으로 변화하고 심리적 안녕감이 증가하여 외상 후 성장에 도달한다고 볼 수 있다(Joseph et al., 2012b). 이에 본 연구는 한국판 PWB-PTCQ와 인지적 재해석 전략이 정적인 상관을 이룰 것이라 예상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재해석 6문항을 사용하였고 내적 합치도는 .84이다.

상태-특성 불안척도(State-Trait Anxiety Inventory; STAI-KYZ). 변별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Spielberger(1983)가 개발하여 한국에서 표준화한 한국판 상태-특성불안 척도 STAI(한덕웅, 이창호, 탁진국, 1993)를 사용하였다.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은 지속적이고 자동적인 외상 기억의 침습을 보고하는데 이로 인해 나타나는 혼란 반응이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과 각성이다. 외상 후 성장은 스트레스 반응에 완충 작용을 하고 성취감 등의 긍정정서를 경험하게 하지만 외상 사건 자체는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반면 외상 후 성장과 불안은 부적인 상관 혹은 상관이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Cohen & Hoberman, 1983; Thoits, 1983; 송승훈 등, 2009에서 재인용). 이에 본 연구에서는 외상 후 성장과 불안의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한국판 PWB-PTCQ와 불안이 부적인 상관을 이룰 것이라 예상하였다. 한국판 상태-특성불안 척도 STAI는 긴장과 불안에 대한 주관적이고 의식적으로 지각된 감정인 상태불안과 비교적 변하지 않는 개인차로 상황에 따른 심리적 긴장에 영향을 받지 않는 특성불안 2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40문항 전체를 사용하였으며 내적

합치도는 .82이다.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Social Desirability Scale; SDS). 변별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Paulhis(1984)가 개발하고, 최보라(2007)가 타당화한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점수 높을수록 실제 자신의 상태와 관계없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응답하려는 긍정 경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외상 후 성장은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변화의 측면에서 좋은 것이고 바람직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래야만 한다고 인식될 수 있어 긍정적 평가 경향 태도인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Tedeschi와 Calhoun(2004)은 외상 후 성장을 심각한 어려움과 인생의 위기 상황을 경험한 결과로 나타나는 긍정적 변화로, 대처전략이나 개인의 착각,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실제 삶의 변화임을 주장했다. 송승훈 등(2009)의 연구와 PWB-PTCQ 원판 타당화 연구(Joseph et al., 2012a)에서도 사회적 바람직성과의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판 PWB-PTCQ와 사회적 바람직성은 상관이 없거나, 혹은 있더라도 아주 미약할 것이라 예상하였다. 본 연구의 내적합치도는 .56이다.

사건충격척도 개정판(Impact of Event Scale; IES-R). 변별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외상경험 후 심리적 고통을 측정하였다. Horowitz와 동료들(1997)은 외상 사건의 기억 침습과 침투적 재경험,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회피를 평가하는 척도(IES)를 개발하였고, 이후 Weiss, Marmar(1997)가 IES에 PTSD의 핵심 특징 중 하나인 과각성 척도

를 첨가하여 22문항으로 추가 한 사건 충격 척도 개정판(IES-revised: IES-R)을 구성하였다. 은현정 등(2005)이 사건충격척도 개정판을 타당화 하였으며, 이는 다른 척도들과 달리 스트레스의 종류와 관계없이 모든 외상 사건에 적용된다. PWB-PTCQ는 진단적 도구로 의도된 것은 아니지만 측정범상 낮은 점수는 정신 병리적 특징을 반영할 것으로 예측되어 한국판 PWB-PTCQ와 외상 후 심리적 고통 수준이 부적인 상관을 이룰 것이라 예상하였다. 본 연구의 내적 합치도는 .93이다.

자아탄력성 척도(Ego Resilience Scale; ER89). 외상 후 심리적 안녕감 변화의 예측변인 분석을 위해 Block과 Kremen(1996)이 개발하고 박은희(1997)가 타당화한 자아탄력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아탄력성 점수가 높을수록 적응이 요구되는 스트레스 사건 경험 후에 개인이 자기-통제 수준으로 다시 돌아오는 능력이 더 뛰어남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내적합치도는 .79로 나타났다.

한국판 외상경험 개방에 대한 사회적 반응 척도(Social Reactions Questionnaire; SGQ). 외상 후 심리적 안녕감 변화의 예측변인 분석을 위해 Ullman(2000)이 개발하고 심기선, 안현의(2014)가 타당화한 한국판 외상경험 개방에 대한 사회적 반응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44문항으로 정서적 지지, 낙인찍기, 방해하기, 통제하기, 실질적 도움, 피해자 비난, 자기중심적 반응 등 총 7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하위요인들은 다시 상위요인인 긍정적 사회적 반응, 부정적 사회적 반응으로 묶인다. 본 연구에서는 상위요인 2가지를 사용하였으며 내적 합치도는 긍정

적 사회적 반응 .91, 부정적 사회적 반응 .94로 나타났다.

자료분석

예비조사와 본 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기술통계 및 문항분석을 위해 평균 및 표준편차, 문항-전체 간 상관, 문항 간 상관이 검토되었다. 그리고 예비조사에서 요인 구조 확인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 이하 EFA)을 실시하였다. 요인추출은 평행 분석을 이용한 주성분 분석과 직각회전(VARIMAX)을 활용하였다. 요인 부하량이 .40이상인 문항을 기준으로 고유치, 스크리 도표, 설명량 등을 참고한 문항 분석의 결과에 따라 요인과 문항을 구성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경험적으로 얻어진 PWB-PTCQ가 다른 집단에서도 확인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본 조사에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조 방정식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 과정에서 최대우도 추정법(Maximum Likelihood Method)으로 측정모형에 대한 모수치들을 추정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델 적합도를 확인하기 위해 χ^2 , CFI, TLI, AIC, RMSEA를 참조하였다. 타당도 분석을 위해 한국판 PWB-PTCQ와 관련 척도의 공준, 수렴 및 변별 타당도를 분석을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관련변인 분석에서는 먼저 외상 후 심리적 안녕감이 증가한 집단과 감소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외상 후 심리적 안녕감 변화와 자아탄력성, 외상경험개방에 대한 사회의 긍정적·부정적 반응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Pearson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이후 자아 탄력성과 외상사건 개방에 대한 사회적 반응이 외상 후 심리적 안녕감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자아탄력성, 외상경험 개방을 독립변인으로, 외상 후 심리적 안녕감 변화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자아 탄력성과 외상사건 개방에 대한 사회적 반응이 외상 후 심리적 안녕감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위계적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결 과

예비조사결과

참여자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최소한 한 번 이상의 외상 경험이 있었고, 기본 질문지 및 외상 경험 질문지 8번 문항 “앞의(외상)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충격 및 고통의 심각도는 어느 정도였습니까?”에서 1점(전혀 심각하지 않다)~5점(매우 심각하다) 중 2점(약간 심각하다)이상의 심각도를 택한 사람들이다. 서울, 경기 지역 대학교, 직장, 교회, 대형 마트 등에서 설문지를 배포하여 총 148부의 자료가 표집되었고, 외상 경험이 없거나, 기본 질문지 및 외상 경험 질문지 8번 문항에서 1점(전혀 심각하지 않다)을 택한 23명의 자료를 제외하여 125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성별은 남자 46명(36.8%), 여자 79명(63.2%)이고, 평균 연령은 34.80살이다. 보고한 외상 사건은 사랑하는 혹은 의미 있는 사람의 사망이 37명(29.6%)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사랑하는 혹은 의미 있는 사람의 질병 26명(20.8%), 학업, 과업문제(낙방, 실

패, 좌절 등) 14명(11.2%), 본인의 심각한 신체질병 9명(7.2%), 이혼이나 별거 혹은 가정불화 7명(5.6%) 적응문제 6명(4.8%), 배신, 충격(거짓말, 사기 등) 4명(3.2%), 자연재해 4명(3.2%), 성추행 및 성폭행 4명(3.2%), 대인관계 파탄 3명(2.4%), 범죄 피해 3명(2.4%), 경제적 어려움 3명(2.4%), 사고 및 상해 2명(1.6%), 어린 시절의 학대 2명(1.6%), 실직 혹은 구직의 실패 1명(0.8%) 순이었다.

먼저 문항분석은 평균값이 극단 값으로 치우치는 것이 없었고, 표준편차도 고르게 분포되었다. 문항-총점 간 상관에서 상관 계수가 .30이하인 문항은 없었고, 문항 간 상관분석에서 대부분의 문항들의 상관은 .70이하로 나타났으나 1번과 2번 문항의 상관이 .74로 높게 도출되었다.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다시 한 번 살펴보기 위해 삭제하지 않고 분석을 실시하였다(표 2). 18문항 전체 신뢰도 α 는 .94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표 2에서처럼 2요인의 구조로 나타났다. 2개 요인은 전체 분산의 58.56%를 설명하고 있었으며 요인 부하량이 .40 이상이었다. 이에 요인부하량 및 문항 내용 검토를 통해 요인을 명명하였다. 요인 1은 ‘자신과 세상에 대한 긍정적 변화’, 요인 2는 ‘인생관 및 대인관계의 변화’이다.

분석결과 요인 1로 묶인 문항은 대부분 자아 수용성의 변화, 환경통제력의 변화, 개인적 성장을 설명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세 가지 요인은 외상 후 성장의 3요소에서 ‘자신과 세상에 대한 긍정적 변화’에 부합되는 요인이다. 한편 기존의 요인과 다르게 위치한 문항들이 있는데 우선 10번(‘나는 인정 많고 베풀 줄 아는 사람이다.’)은 기존 척도에서는 대인관계를 설명하는 문항이

지만 문항 내용을 살펴보면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로 받아들여졌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14번(‘나는 나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다른 사람과 생각이 다르더라도 나의 입장을 유지할 것이다.’)은 인생관의 변화를 설명하는 문항이지만 자신을 인정하고,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시각을 갖게 되는 요인 1의 특성에 더 잘 부합하여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7, 10, 11, 12, 13, 14, 16, 17, 18번, 총 9문항을 ‘자신과 세상에 대한 긍정적 변화’를 설명하는 요인으로 묶었다. 하지만 본 척도는 반응 양식에 따라 긍정적 변화, 부정적 변화 모두를 측정할 수 있으므로, ‘긍정적’이라는 단방향성의 단어를 제외하고 ‘자신과 세상에 대한 변화’라고 요인 1을 명명하였다.

요인 2로 묶인 문항은 자율성의 변화, 관계의 변화를 설명하는 4번, 삶의 목표 변화를 설명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자율성의 변화와 삶의 목표의 변화는 외상 후 성장의 ‘인생관의 변화’에 부합되는 요인이고, 타인과의 긍정적 관계 요인은 외상 후 성장의 ‘대인 관계에서의 변화’에 부합되는 요인이다. 이 두 가지 요인이 묶여 한 가지 요인으로 도출되어 요인 2를 ‘인생관 및 대인관계 변화’로 명명하였다. 기존의 요인과 다르게 배정된 문항들이 있는데 5번(‘나는 내 삶에 대한 통제감이 있다고 느낀다.’)과 6번(‘나는 나에게 도전이 되는 새로운 경험에 개방적이다.’)의 문항내용은 특성상 삶의 목적 요인으로 해석되었을 가능성이 예상된다.

한편 15번(‘나의 삶은 가치가 있고 그 안에서 내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느낀다.’)은 원칙도에서 인생관의 변화를 묻는 문항이다. 요인부하

량이 요인 1과 요인 2에 중복되었으나 내용상 ‘인생관 및 대인관계 변화’로 명명한 요인 2에 더 부합하는 문항이므로 요인 2에 포함하였다. 그리하여 요인 2에는 2, 3, 4, 5, 6, 8, 9, 15번 총 8문항이 포함되었다.

또한 원래 자아 수용성의 변화를 설명하는 1번 문항은 요인 2로 묶여 있으나 요인 1에서도 .48의 부하량을 가지고 있는데 의미적인 면과 이론적 면에서 보면 요인 1로 이동시키거나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였다. 하지만 문항 간 상관에서 볼 수 있었던 문항 1번과 2번의 상관이 .74로 높게 나와 양호도가 적합하지 않았고, 이처럼 상관이 높아 다른 요인으로 배치하기에도 어려움이 있다. 1번 문항이 설명하는 자기 수용의 변화에 대해서는 7번, 13번이 적절한 요인에 포함되어 이를 측정하고 있기에 1번 문항이 제거된다고 해서 구성개념의 의미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문항을 삭제하였다. K-PWB-PTCQ의 추출된 요인 수와 구성은 원판과 같지 않지만 외상 후 성장의 이론적 배경에 근거한 요인구조임을 확인했다.

본 조사

참여자들은 예비조사와 같은 조건으로 표집되었다. 서울, 경기 지역 대학교, 직장, 교회, 대형마트에서 360부가 표집되었고 예비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성인들이다. 외상 경험이 없거나, 앞서 제시된 기본 질문지 및 외상 경험 질문지 문항에서 1번(전혀 심각하지 않다)을 택한 54명의 자료를 제외하여 306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성별은 남자 144명(47.1%), 여자 162명(52.9%)이고, 평균 연령은 38.48살이다. 이들이 보고한 외상 사

표 2. 한국판 PWB-PTCQ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	문항	문항(요인 1)		요인		
				1	2	
자신과 세상에 대한 변화	10	나는 인정 많고 베풀 줄 아는 사람이다.	RO	2	.74	-.01
	13	나는 나 자신을 존중한다.	SA	1	.73	.41
	11	나는 내 삶에서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한다.	EM	1	.73	.27
	12	나는 항상 내 자신에 대해 알아가려고 노력한다.	PG	1	.71	.34
	16	내 삶에서 나를 아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감사한다.	RO	2	.69	.30
	17	나는 삶이 나에게 준 과업에 잘 대처할 수 있다.	EM	1	.62	.39
	14	나는 나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다른 사람과 생각이 다르더라도 나의 입장을 유지할 것이다.	A	3	.61	.30
	18	나는 나의 미래에 대해 희망적이며 새로운 가능성들을 기대한다.	PG	1	.57	.52
	7	나는 나의 강점과 약점을 포함해서 나 자신을 수용한다.	SA	1	.52	.49
1*	나는 나 자신을 좋아한다.	SA	1	.48	.64	
인생관 및 대인관계 변화	2	나는 내 생각에 확신이 있다.	A	3	.24	.75
	3	나는 삶의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다.	PL	3	.36	.69
	5	나는 내 삶에 대한 통제감이 있다고 느낀다.	EM	1	.12	.69
	9	내 삶은 의미가 있다.	PL	3	.55	.62
	4	나는 친밀하고 강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RO	2	.31	.55
	6	나는 나에게 도전이 되는 새로운 경험에 개방적이다.	PG	1	.29	.55
	8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A	3	.16	.47
	15**	나의 삶은 가치가 있고 그 안에서 내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느낀다.	PL	3	.69	.53

원관 하위 척도의 약자 : SA=self-acceptance, RO=relations with others, A=autonomy EM=environmental mastery, PL=purpose in life, PG=Personal growth

1= 자신과 세상에 대한 긍정적 변화, 2=대인관계에서의 변화, 3=인생관의 변화(1, 2, 3은 원척도의 3요인임)

1*은 삭제되었음.

15** 는 요인 1이었으나 요인 2로 이동되어 포함되었음.

건은 사랑하는 혹은 의미 있는 사람의 사망이 85명(27.8%)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사랑하는 혹은 의미 있는 사람의 질병 33명(10.8%), 사고 및 상해 29명(9.5%), 배신, 충격(거짓말, 사기 등) 24명(7.8%), 이혼이나 별거 혹은 가정불화 22명(7.2%), 적응문제 22명(7.2%), 학업, 과업문제(낙방, 실패, 좌절 등) 20명(6.5%), 본인의 심각한 신체질병 16명(5.2%), 대인관계 파탄 15명(4.9%), 성

추행 및 성폭행 12명(3.9%), 자연재해 8명(2.6%), 범죄피해 8명(2.6%), 경제적 어려움 6명(2.0%), 어린 시절의 학대 3명(1.0%), 실직, 구직의 실패 3명(1.0%) 순이었다.

문항분석은 평균값이 극단 값으로 치우치는 것이 없었고, 표준편차도 고르게 분포되었다. 문항-총점 간 상관에서 상관 계수가 .30이하인 문항은 없었고, 문항 간 상관분석에서 대부분의 문항들의

상관은 .70이하로 나타났으나 예비조사에서처럼 1번과 2번 문항의 상관이 .74로 높게 도출되었다.

확인적 요인분석에서는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도출된 17문항 2요인 모형과, Joseph 등(2012a)이 타당화한 18문항 1요인 모형을 경쟁모형으로 설정하고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각 모델의 적합도를 확인하기 위해 χ^2 , CFI, TLI, RMSEA를 참조하였다. 그 결과, 1번을 제거한 2요인 모델의 적합도가 단일요인의 적합도보다 우수하게 나타났다. 이 모델의 $\chi^2_{(118)}$ 값은 유의하였고, CFI의 값은 .92, TLI는 .91로 좋은 합치도의 기준 값을 보였으며 RMSEA는 .078(.068~.088)로 괜찮은 합치도 수준에 해당되어 전반적으로 양호한 적합도를 보이고 있다. 반면, 1요인 모델의 적합도를 살펴보면, CFI 값인 .90로 좋은 합치도의 값을 보이지만, TLI는 .89로 .9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RMSEA도 .085로 괜찮은 합치도 수준인 .08을 초과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17문항으로 구성된 2요인 모형이 본 연구의 자료와 더 잘 부합한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외의 모수 추정치와 C.R. 값을 알아보았다(표 3). 고정된 계수를 제외한 모든 요인 계수의 C.R. 값은 모두 유의하였고, 표준화 계수도 거의 모든 문항이 유의하였다. 하지만 문항 8번을 살펴보면,

요인 부하량에 대한 유의성(C.R.) 값은 유의한 값이지만, 표준화된 요인 부하량 값이 .36으로 기준이 되는 .50 이하의 값으로 나타났다. 요인 부하량이 .50 이하라도 너무 낮지만 않다면 무조건 제거하기 보다는 그 이유를 찾아보는 것이 권장되지만(우종필, 2012), ‘너무 낮지만 않다면’ 예시로 제시되었던 값(.40)보다 상당히 작은 값이 도출되었고 문항이 제거된다고 구성 개념의 의미가 변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어 삭제하였다.

8번 문항이 제거된 2요인 모형의 적합도를 분석한 결과 2요인 모델의 $\chi^2_{(89)}$ 값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CFI의 값은 .92, TLI의 값은 .91로 8번 문항이 포함되어 있는 모형(CFI=.92, TLI=.91) 만큼 좋은 합치도를 보였다. AIC 역시 394.312로 8번 문항이 포함된 모형보다 작은 수가 산출되어 좋은 적합도를 보였다. RMSEA는 .079(.068~.089)로 8번 문항이 포함되어 있는 모형(.078)보다 더 높긴 하지만 괜찮은 정도의 합치도 수준에 해당되는 적합도를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신뢰도 및 하위요인 상관을 알아보았다. 최종 한국판 PWB-PTCQ 척도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내적 합치도인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각 하위요인 별로는 자신과 세상에 대한 변화 요인이 .93, 인생관 및 대인관계의

표 3. 모형간의 적합도 지수 비교(N=306)

모델	χ^2	df	TLI	CFI	AIC	RMSEA (90%신뢰구간)
1요인 (18문항 전체)	380.389	119	.887	.901	482.389	.085 (.075~.095)
2요인 (1번 제외)	335.852	118	.905	.918	438.455	.078 (.068~.088)
2요인 (1번, 8번 제외)	297.810	103	.912	.924	394.312	.079 (.068~.089)

변화 요인이 .85로 나타났으며 척도 전체는 .94로 산출되었다. 그리고 하위 요인간의 상관을 확인해 보았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척도 전체와 자신과 세상에 대한 변화는 .95, 인생관 및 대인관계의 변화는 .93의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하위 요인인 자신과 세상에 대한 변화와 인생관 및 대인관계의 변화도 .79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다음으로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먼저 공존타당도를 위해 외상 후 성장 척도와 한국판 PWB-PTCQ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r=.69, p<.01$). 이는 원판의 결과($r=.56, p<.01$)보다 더 높은 상관관계수이다. 이를 통해 한국판 PWB-PTCQ가 PTGI와 같은 성장의 개념을 측정한다는 공존타당도가 확인되었다.

수렴 타당도를 살펴보기 위해 한국판 PWB-PTCQ와 삶의 지향 척도, 감사척도, 인지재평가 척도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낙관주의 성향을 측정하는 삶의 지향 척도($r=.39, p<.01$), 감사척도($r=.42, p<.01$), 인지적 재해석 척도($r=.31, p<.01$)와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이를 통해 외상 후 성장과 관련성이 높은 변인들이 한국판 PWB-PTCQ와도 역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변별 타당도를 살펴보기 위해 한국판 PWB-PTCQ와 외상 후 심리적 고통, 불안과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고, 외상 후 심리적 안녕감의 변화가 단순히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거나 긍정왜곡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살펴보기 위해 사회적 바람직

표 4. 한국판 PWB-PTCQ의 하위요인 간 상관 및 신뢰도(N=306)

척도	자신과 세상에 대한 변화	인생관 및 대인관계의 변화	PWB-PTCQ
자신과 세상에 대한 변화	1		
인생관 및 대인관계의 변화	.79**	1	
PWB-PTCQ 전체	.95**	.93**	1
cronbach's a	.91**	.85**	.94**

** $p<.001$.

표 5. PWB-PTCQ와 PTGI의 상관관계 및 신뢰도(N=306)

	척도	PWB-PTCQ	신뢰도
공존타당도	외상 후 성장 척도	.69**	.95
	삶의 지향 척도	.39**	.70
수렴타당도	감사성향 척도	.42**	.91
	인지적 재해석 척도	.31**	.84
변별타당도	외상 후 심리적 고통 척도	-.41**	.93
	불안 척도	-.02	.82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	.16**	.56

** $p<.01$.

성과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외상 경험으로 인한 심리적 고통과 한국판 PWB-PTCQ은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었다($r=-.41, p<.01$). 일반인 집단도 사건 충격으로 인한 심리적 고통수준이 클수록 외상 후 심리적 안녕감은 감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 불안은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불안과 외상 후 심리적 안녕감 변화가 독립적인 차원임을 확인하였다. 한국판 PWB-PTCQ와 개인의 태도와 관련된 사회적 바람직성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r=.16, p<.01$). 하지만 상관계수가 .16으로 변별타당도를 위협할 만큼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이러한 결과들은 선행연구를 토대로 한 예측과 대부분 일치하여 한국판 PWB-PTCQ가 외상 후 성장을 측정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PWB-PTCQ 예측변인 분석

참여자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최소한 한 번 이상의 외상 경험이 있었고, 기본 질문지 및 외상 경험 질문지 8번 “앞의(외상)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충격 및 고통의 심각도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문항의 1점(전혀 심각하지 않다)~5점(매우 심각하다) 중 2점(약간 심각하다)이상의 심각도를 택한 사람들이다. 서울, 경기 지역 대학교, 직장, 교회, 대형 마트에서 245부가 표집되었고 연구1에 참여하지 않은 성인들이다. 외상 경험이 없거나, 앞서 제시된 기본 질문지 및 외상 경험 질문지 문항에서 1번(전혀 심각하지 않다)을 택한 23명의 자료를 제외하여 222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성별은 남자 73명(32.9%), 여자 149명(67.1%)

으로 여자가 34.2% 더 많았고, 연령별로는 20대 101명(45.5%), 30대 32명(14.5%), 40대 29명(13.1%), 50대 55명(24.8%), 60대 4명(1.8%)으로 평균 35.87세이다. 이들이 보고한 외상 사건은 사랑하는 혹은 의미 있는 사람의 질병 50명(22.5%)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대인관계 파탄 30명(13.5%), 학업, 과업문제(낙방, 실패, 좌절 등) 23명(10.4%), 사랑하는 혹은 의미 있는 사람의 사망이 21명(9.5%), 사고 및 상해 21명(9.5%), 배신, 충격(거짓말, 사기 등) 21명(9.5%), 이혼이나 별거 혹은 가정불화 13명(5.9%), 본인의 심각한 신체질병 12명(5.4%), 경제적 어려움 11명(5.0%), 적응문제 5명(2.3%), 자연재해 5명(2.3%), 실직 혹은 구직의 실패 3명(1.4%), 범죄 피해 3명(1.4%), 성추행 및 성폭행 2명(0.9%), 어린 시절의 학대 2명(0.9%) 순이었다.

먼저 외상 후 심리적 안녕감이 증가한 집단과 외상 후 심리적 안녕감이 감소한 집단의 변인 간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표 6).

외상 후 심리적 안녕감이 증가한 집단(PWB-PTCQ>48)은 222명 중 164명, 감소한 집단(PWB-PTCQ<48)은 40명, 변하지 않은 집단(PWB-PTCQ=48)은 18명이었다. 18명은 제외하고 외상 후에 심리적 안녕감의 변화를 겪은 204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외상 후 심리적 안녕감이 증가한 집단과 감소한 집단에서 자아탄력성, 외상 경험 개방 후 긍정적 사회적 반응, 외상 경험 개방 후 부정적인 사회적 반응 모두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상 후 심리적 안녕감이 증가한 집단이 외상 후 심리적 안녕감이 감소한 집단보다 평균 3.80점 높은 자아탄력성, 평균

5.41점 높은 외상경험 개방 후 긍정적인 사회적 반응을 보였다. 외상경험 개방 후 부정적인 반응은 심리적 안녕감이 감소한 집단이 증가한 집단에 비해 평균 7.93점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자아탄력성, 외상경험 개방 후 사회적 반응, 외상 후 심리적 안녕감 변화 간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피어슨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표 7). 외상 후 심리적 안녕감 변화의 총합과 자아탄력성, 외상경험 개방 후 긍정적 사회적 반응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이, 부정적 사회적 반응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하위요인별로는 먼저 인생관 및 대인관계의 변

화요인과 자아탄력성, 외상경험 개방 후 긍정적 사회적 반응은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고, 부정적 사회적 반응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다음으로 자신과 세상에 대한 변화 변인은 자아탄력성($r=.54, p<.01$), 외상경험 개방 후 긍정적 사회적 반응($r=.22, p<.01$)과의 정적 상관을 보인 반면, 외상경험 개방 후 부정적인 사회적 반응과는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으로 자아탄력성과 외상경험 개방 후 사회적 반응에 따라 외상 후 심리적 안녕감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를 검증하기 위해 자아탄력성과 긍정적인 사회적 반응, 부정적인 사회적 반응 각각을 독립변인으로, 외상 후 심리적 안녕

표 6. 외상 후 심리적 안녕감 변화에 따른 관련 변인의 일원분산분석 결과($N=204$)

변인	집단	<i>N</i>	<i>M</i>	<i>SD</i>	<i>F</i>	<i>p</i>
자아탄력성	외상 후 심리적 안녕감 증가	164	41.80	4.62	60.16***	.000
	외상 후 심리적 안녕감 감소	40	35.60	4.15		
부정적인 사회적 반응	외상 후 심리적 안녕감 증가	164	20.05	14.59	9.60**	.002
	외상 후 심리적 안녕감 감소	40	27.98	14.06		
긍정적인 사회적 반응	외상 후 심리적 안녕감 증가	164	46.44	12.47	4.72*	.035
	외상 후 심리적 안녕감 감소	40	41.73	11.64		

* $p<.05$, ** $p<.01$, *** $p<.001$.

표 7. 외상 후 심리적 안녕감 변화와 자아탄력성, 외상경험 개방 후 사회적 반응과의 관계($N=222$).

		자아탄력성	긍정적인 사회적 반응	부정적인 사회적 반응
외상 후 심리적 안녕감 변화	인생관 및 대인관계의 변화	.51**	.20**	-.19**
	자신과 세상에 대한 변화	.54**	.22**	-.09
	총합	.55**	.22**	-.14*

* $p<.05$, ** $p<.01$.

표 8. 외상 후 심리적 안녕감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자아 탄력성, 긍정적인 사회적 반응, 부정적인 사회적 반응에 대한 단순회귀 분석결과(N=222).

종속변인	독립변인	B	β	t	R ²	Adj R ²	F
PWB-PTCQ	자아탄력성	1.15	.55	9.87***	.31	.30	97.41***
	긍정적 사회적 반응	.19	.22	3.34**	.05	.04	11.17**
	부정적 사회적 반응	-.11	-.14	-2.16**	.02	.02	4.67*

*p<.05, **p<.01, ***p<.001.

표 9. 외상 후 심리적 안녕감 변화의 영향요인(N=222)

모형	B	β	t	R ²	R ² 변화량	F변화량	
1단계	자아탄력성	1.154	.554	9.870***	.307	.307	97.413***
2단계	긍정적인 사회적 반응	.109	.127	2.240*	.322	.015	5.017*
3단계	부정적인 사회적 반응	-.052	-.071	-1.235	.327	.005	1.524

*p<.05, ***p<.001.

감 변화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단순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표 8). 그 결과 자아탄력성($\beta=1.05$, $p<.001$), 외상 후 긍정적 사회적 반응($\beta=.19$, $p<.01$), 외상경험 개방 후 부정적인 사회적 반응($\beta=-.11$, $p<.05$) 모두 외상 후 심리적 안녕감 변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인의 설명량은 순서대로 30%, 4%, 2%이다.

마지막으로 외상 후 심리적 안녕감의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자아탄력성과 외상경험 개방 후 긍정적 사회적 반응, 외상경험 후 부정적 사회적 반응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9). 독립변인들 간의 상관관계가 높다면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결과 제시 전 독립변인들 사이에 다중공선성이 존재하는지 확인하였다. 공차 한계값, VIF의 최대값 모두 기준값에 맞게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

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Durbin-Watson의 값 역시 잔차의 독립성에 문제가 없는 정도로 나타났기에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외상 후 심리적 안녕감 변화의 예측을 위해 1단계에 투입된 탄력성이 외상 후 심리적 안녕감 변화의 30.7%를 설명하였다($R^2=.307$, R^2 변화량=.307, $p<.001$). 2단계에서는 긍정적인 사회적 반응을 투입하여 1.5%의 설명력을 증가시켰다($R^2=.322$, R^2 변화량=.015, $p<.05$). 3단계에서는 부정적인 사회적 반응을 투입하였으나 설명력이 미비하였다($R^2=.327$, R^2 변화량=.005, ns). 외상 후 심리적 안녕감 변화를 예측하는데 독립변인의 상대적인 기여도는 탄력성($\beta=.554$, $p<.001$), 다음으로 외상경험 개방 후 긍정적인 사회적 반응($\beta=.127$, $p<.05$)인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Joseph 등(2012a)에 의해 개발 및 타당화 된 PWB-PTCQ를 번안하여 우리나라 성인들을 대상으로 타당화 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문항 번안 후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문항을 구성하였고, 본 조사에서 서울, 경기 지역의 성인을 대상으로 외상 후 심리적 안녕감 변화 척도의 요인구조와 신뢰도 및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이후 외상 후 심리적 안녕감의 관련 변인인 자아탄력성과 외상경험 개방 후 사회적 반응(긍정적 반응, 부정적 반응)의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이를 통해 외상 후 긍정적인 변화 즉 성장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기제의 기제를 도모하고, 외상경험을 한 개인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전략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들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Joseph와 동료들(2012a)이 타당화한 외상 후 심리적 안녕감 변화 척도(PWB-PTCQ)를 한국어로 번안하고 타당화 하였다. 문항분석과 탐색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원판과는 달리 16문항, 2요인 구조로 나타났고 신뢰도 분석을 통해 내적 합치도가 높은 도구임을 확인하였다.

문항 1번과 8번은 적합하지 않은 문항으로 도출되어 삭제하였고, 문항 5, 6, 10, 14, 15, 16번은 기존 척도와 다르게 요인 이동을 하였지만 이는 이론적 개념에 부합하였다. Joseph와 Linley(2008)는 심리적 안녕감 이론에 토대를 둔 외상 후 심리적 안녕감의 6요인이 외상 후 성장의 세 요소에 연결되고 있음을 제안하여 심리적 안녕감 6요인을 강조하기보다는 단일요인으로 타당화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도 심리적 안녕감 6요인으로 도출되지 않았고 외상 후 성장 3요인과 연결이 가능하였다. 3개의 요인 중 대인관계와 인생관의 변화가 합쳐졌고, 자신과 세상에 대한 변화가 독립적 요인으로 분리되어 2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삭제된 문항 8은 미국의 문화 특성상 자신의 의견을 고수하는 것은 건강한 일이지만 우리나라는 문화 특성상 자신의 의견을 중요시 여겨 다른 사람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것은 안하무인(眼下無人)으로 판단되어 긍정적인 변화로 받아들이기 힘든 것으로 예상된다. 1번 문항은 2번과 높은 상관을 보여 삭제하였다. 따라서 최종 한국적 외상 후 심리적 안녕감 척도는 1, 8번이 제외된 16문항 2요인 구조로 이루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존의 척도, 특히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외상 후 성장 척도가 긍정적 영향의 정도만을 측정하는 데 비해, 한국판 PWB-PTCQ는 외상 후 심리적 안녕감의 증가뿐만 아니라 감소 역시 측정할 수 있다. 외상 후 성장의 추후 연구나 여러 치료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을 위해서는 긍정적, 부정적 측면 모두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효율적인 도구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판 PWB-PTCQ는 외상 이전, 외상 이후 두 시점을 따로 검사하지 않고도 변화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으며, 변화의 방향까지도 측정할 수 있는 효율적인 도구이며 외상의 부정적 영향과 긍정적 영향의 두 측면을 통합하는 연구의 기초를 제공할 것이라 기대한다.

다음으로 타당화한 한국판 PWB-PTCQ를 통해 외상 후 심리적 안녕감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확인하였다. 외상 후 심리적 안녕감 변화와 관련된 변인으로 자아탄력성, 외상경험 개방 후

긍정적인 사회적 반응, 외상경험 개방 후 부정적인 사회적 반응에 주목하여 그 관계를 밝혔다.

첫째, 외상 후 심리적 안녕감 변화 척도는 변화의 방향성이 있는 척도이다. 이에 심리적 안녕감이 증가한 사람들과 감소한 사람들의 집단으로 나누어 집단 간에 자아탄력성, 외상경험 개방 후 긍정적인 사회적 반응, 외상 경험 개방 후 부정적인 사회적 반응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 보았다. 그 결과 유의한 차이가 도출되었는데, 외상 후 심리적 안녕감이 증가한 집단이 감소한 집단에 비해 자아탄력성이 높았고 긍정적인 사회적 반응을 더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외상경험 개방 후 부정적인 사회적 반응은 외상 후 심리적 안녕감이 감소한 집단이 증가한 집단보다 더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외상 후 심리적 안녕감 변화와 자아탄력성, 외상경험 개방 후 긍정적 사회적 반응, 외상경험 개방 후 부정적 사회적 반응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우선 외상 후 심리적 안녕감은 자아탄력성, 긍정적 사회적 반응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부정적 사회적 반응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우선 외상 후 심리적 안녕감과 자아탄력성의 정적인 상관은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외상 후 심리적 안녕감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나타낸다. 이는 외상 후 성장과 자아탄력성의 관계를 연구한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김보라, 2010; 단두리, 2013; 유란경, 2012). 또한, 외상 경험 개방 후 긍정적인 사회적 반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외상 후 심리적 안녕감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신선영, 정남운(2012)의 외상 당시에 받은 사회적 지지가 높다고 지각할 때 외상 후 성장을 더 많이 한다는 연구결과와 일치

한다.

반면 외상 후 심리적 안녕감 변화와 부정적 사회적 반응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외상 사건에 대한 개방 시 부정적인 타인의 반응이 많으면 자기 비난의 악순환이 강화되어(Allen, 2005) 심리적 안녕감도 감소함을 보여준다. 부정적 반응은 외상 경험자를 이전과 다르게 대우하거나, 외상 경험자가 외상에 대한 생각이나 이야기를 하지 못하게 하거나, 외상경험자를 대신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거나 대신 일을 처리하거나, 외상 경험자를 탓하거나, 외상 경험자보다 자기에게 초점화 하여 반응하는 것을 의미한다(Ullman, 2007). 타인으로부터 부정적인 반응을 많이 받을수록 이후 회피적인 대처를 하게 되며 이는 심리적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Breitkopf, 2006).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볼 때, 외상 이후 부적응적인 양상, 예를 들어 외상 경험과 관련된 생각과 감정을 억압하거나 회피하는 것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해를 끼치게 되는 역효과를 초래하므로 외상 후 심리적 안녕감이 낮아질 것을 예측할 수 있다. 김나정(2015)의 연구에서는 외상경험 개방 후 부정적 사회적 반응인 통제하기와 우울 간의 정적 상관이 있음을 밝혔다. 외상 후 심리적 안녕감 감소와 우울은 다른 요인이지만 모두 외상 후 부정적인 변화임을 생각해 보았을 때, 맥을 함께 한다고 볼 수 있다.

하위요인별로는 먼저 인생관 및 대인관계의 변화요인이 자아탄력성, 외상경험 개방 후 긍정적 사회적 반응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부정적 사회적 반응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주목할 만한 점은 자신과 세상에 대한 변화 변인은 탄력성, 외상경험 개방 후 긍정적 사회적 반응과 정적

상관을 보인 반면에 외상경험 개방 후 부정적인 사회적 반응과는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자아탄력성과 외상경험 개방 후 긍정적 사회적 반응은 인생관 및 대인관계 변화요인, 자신과 세상에 대한 변화 요인 모두에 정적 상관을 보였지만, 외상경험 개방 후 부정적 사회적 반응은 인생관 및 대인 관계의 변화 요인에만 정적 상관을 보였다. 외상 경험 후 부정적인 사회적 반응을 많이 받을수록 인생관 및 대인관계 변화 점수는 감소하는데 이는 사회적 반응자체가 대인관계와 큰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고 예측된다.

셋째, 외상 후 심리적 안녕감 변화에 자아탄력성, 외상경험 개방 후 긍정적 사회적 반응, 외상경험 개방 후 부정적 사회적 반응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을 때, 세 변인 모두 유의한 영향력이 있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에 다음으로는 외상 후 심리적 안녕감 변화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 자아탄력성, 외상경험 개방 후 긍정적 사회적 반응, 외상경험 개방 후 부정적 사회적 반응의 순서대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자아탄력성 30.7%, 외상경험 개방 후 긍정적인 사회적 반응이 1.5%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외상경험 개방 후 부정적인 사회적 반응은 유의한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아탄력성의 낙천적인 성격특성, 대인관계에서 원만함을 유지하는 특성(위중휘, 조규판, 2014)이 심리적 안녕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외상 경험을 딛고 성장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와 선행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보았을 때, 외상 후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개인의 자아탄력성이 매우

중요하므로 자아탄력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상담 전략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외상 경험 후 긍정적인 사회적 반응이 외상 후 긍정적인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한 여러 연구들(유효정, 2012; 이수립, 2013; 정지혜, 2014)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외상 경험 개방 후에, 들어주고 믿어주며 위로하는 정서적 지지와 필요한 정보나 도움을 제공하는 실질적 도움을 받는 것은 고통스러운 상황임에도 고통을 견딜 수 있게 해주며, 인지적 처리를 유지하도록 할 것이다(Weiss, 2002). 따라서 외상 경험을 개방할 때 긍정적인 반응을 제공 받는 것이 외상 후 심리적 안녕감을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됨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표집의 한계이다. 본 연구에서는 임상군 표집의 어려움으로 임상군과 외상경험이 있는 일반 성인 집단과의 비교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원판의 타당화 연구에서는 임상군과 외상경험이 있는 일반 성인 집단과의 외상 후 심리적 안녕감 변화 점수를 비교연구 하였고 임상군이 유의하게 더 낮은 외상 후 심리적 안녕감 점수를 받았다. 이를 통해 PTSD와 외상 후 심리적 안녕감 변화와의 연관성을 밝혔다. 이에 추후엔 임상군 표본을 모집하여 척도를 실시하여 각 문항이 해당 요인에 제대로 부하되는지, 동일한 모형이 지지되는지를 반복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예측변인 연구에서 역시 외상 후 심리적 안녕감이 감소한 집단은 40명으로, 증가한 집단 164명에 비해 그 수가 상당히 적었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집단 크기 불균형을 보완하여 두 집단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지만, 20대 표본이 표본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고(예비조사 45.6%, 본 조사 32.7%, 예측변인 연구 45.5%) 대부분 서울 시내 대학교에서 표집되었다. 대학생 집단이 일반인 집단에 비해 외상 사건에 노출되는 경향이 낮은 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DePrince et al., 2010), 외상 경험이 단편적이거나 혹은 횡수가 더 적을 수가 있다. 이에 추후에는 연령 비율을 동등하게 표집 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원척도의 18개 문항을 한국어로 번안하여 문항분석과 타당화 과정을 거쳐 2개 문항을 삭제하였고, 그 척도를 이용하여 예측변인 연구가 실시되었다. 재구성된 한국판 PWB-PTCQ의 문항들이 각 요인에 잘 부합되고 높은 모형 적합도와 신뢰도를 갖고 타당도 검증이 되었기에 외상 후 심리적 안녕감의 변화를 측정하기에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대인관계의 변화를 묻는 문항이 1문항(최종PWB-PTCQ 3번: 나는 친밀하고 강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뿐으로 좀 더 세분화된 문항의 내용이 필요하다. 이에 추후에는 대인관계의 변화를 측정하는 문항에 대한 개발 및 후속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본 연구는 회고적 연구로 외상 사건 이전의 자신과 이후의 자신을 비교하여 문항을 체크한다. 이 때 외상 사건이 너무 오래 전이라 기억나지 않거나, 현재의 자신과 비교가 어렵다고 보고한 응답자들이 있었다. 이에 추후에는 적절한 외상사건 경험 시기를 설정하여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자기보고식으로 주관적 판단에 의해 자료 수집을 했다는

한계가 있다. 외상 후에 심리적 안녕감의 증가는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변화의 측면에서 좋은 것이고 바람직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 연구 1에서 변별타당도 검증 시 크지는 않지만 사회적 바람직성과의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도출되었다. 이는 긍정적 평가 경향과 관련이 있을 수 있으므로 추후에는 이를 통제하고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외상 후 성장을 측정하는 도구로서 심리측정적 가치가 높고 다양한 신뢰도, 타당도를 통해 검증이 된 척도인 PWB-PTCQ를 한국판으로 재구성 하였다. 한국판 PWB-PTCQ는 외상 후 변화의 연구 및 성장을 위한 임상 장면과 치료 과정에서의 활용이 기대될 뿐만 아니라 외상 후 부적응을 연구할 때에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아 탄력성과 외상 경험 후 긍정적인 사회적 반응이 외상 후 심리적 안녕감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밝혔다. 이를 통해 임상 장면에서 외상 후 부적응을 이겨내고 나아가 성장으로 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자아탄력성과 긍정적인 사회적 반응을 촉진하는 개입이 도움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참여자들의 외상경험 중 사랑하는 혹은 의미 있는 사람의 질병이 20% 이상, 본인의 심각한 신체질환이 7% 이상으로 신체 질환으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 부분이 외상경험의 큰 부분을 차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신체 질환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함에 따라 발생하는 심리적 외상에도 관심을 갖고, 외상 후 심리적 안녕감의 변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권선중, 김교현 (2007). 한국판 스트레스 관련 성장 척도(K-SRGS-R)의 타당화 연구.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07.
- 권선중, 김교현, 이홍석 (2006). 한국판 감사성향 척도(K-GQ-6)의 신뢰도 및 타당도,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1(1), 117-190.
- 김나정 (2015). 외상경험 개방에 대한 사회적 반응과 우울의 관계에서 외상 후 인지의 매개효과.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명소, 김혜원, 차경호 (2001). 심리적 안녕감의 구성개념분석: 한국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5(2), 19-39.
- 김미영, 김금순 (2005). 뇌혈관 수술 환자의 삶의 질과 관련 요인. 재활간호학회지, 8(1), 5-12.
- 김보라 (2010). 자아탄력성과 삶의 의미가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1), 117-136.
- 김에스터 (2014). 감사성향이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와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현옥 (2010). 아동의 사회적 관계망이 역량지각 및 자아탄력성과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동덕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예슬 (2013). 외상에 대한 의도적 반추와 심리적 수용이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은희 (1997). 자아탄력성, 지능 및 학업성취도와의 관계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단두리 (2013). 자아탄력성 및 자기노출이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의도적 반추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손재민 (2005). 정서조절방략 사용에서의 개인차.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송승훈, 이홍석, 박준호, 김교현 (2009). 한국판 외상 후 성장 척도의 타당도 및 신뢰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4(1), 193-214.
- 송주연, 이희경 (2010). 소아암 환자 어머니의 희망과 삶의 의미가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삶의 의미를 매개로. 상담학연구 11(4), 1501-1517.
- 신선영, 정남운 (2012). 삶의 의미와 사회적 지지가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성장적 반추를 매개변인으로. 人間理解, 33(2), 217-235.
- 신우열, 김민규, 김주환(2009). 회복탄력성 검사 지수의 개발 및 타당도 검증. 한국청소년 연구, 20(4), 105-131.
- 신현숙 (2005). 청소년의 낙관성 및 비관성과 심리적 적응의 관계에서 대처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12(3), 165-192.
- 심기선, 안현의 (2014). 한국판 외상경험 개방에 대한 사회적 반응 척도(K-SRQ)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6(2), 271-298.
- 안현의, 주혜선 (2012).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관련된 자서전적 외상 기억의 조직화 특성.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1(1), 197-220.
- 양계령 (2008). 심리적 확대와 자아탄력성이 복합 PTSD에 미치는 효과: 가정폭력 피해여성을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양귀화, 김종남 (2014). 외상 후 성장 과정에 대한 분석: 정서조절곤란, 침습적 반추, 의도적 반추의 삼중매개효과와 낙관성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9(4), 1041-1065.
- 오수미 (2014). 간호사의 근로환경, 자아탄력성과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PTSS)과의 관계. 경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우종필 (2012). 구조방정식모델 개념과 이해. 한나래출판사.
- 위중희, 조규관 (2014). 아동이 지각한 가족건강성, 서울: 사회적 지지, 스트레스 대처행동 및 심리적 안녕감 간의 구조관계분석. 학습자중심교과연구, 14(8), 237-264.
- 유란정 (2012). 낙관성이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사건-관련 반추 및 대처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효정 (2012). 만성화 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가

- 진 참전군인의 사회적응과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심리적 요인 : 대처전략, 용서,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덕성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은현정, 권태완, 이선미, 김태형, 최말례, 조수진 (2005). 한국판 사건충격척도 수정판의 신뢰도 및 타당도 연구. *J Korean Neuropsychiatry Assoc*, 44(3).
- 이수림 (2013). 외상 유형이 외상 후 성장 및 지혜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와 대처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9(3), 319-341.
- 임선영, 권석만 (2013). 역경 후 성장에 이르는 인지적 처리방략과 신념체계의 특성.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2(3), 567-588.
- 정인명 (2009). 의도적 반추와 낙관성이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지혜 (2014). 사회적 지지, 심리적 유연성, 반추가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경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금진 (2014). 중환자실 간호사의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 증상 및 영향요인.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보라 (2007).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 타당화.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승미 (2008). 외상 후 성장 관련 변인의 탐색.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한덕웅, 이창호, 탁진국 (1993). Spielberger의 상태-특성 불안 검사의 표준화. *한국 심리학회 93 연차대회 학술발표 논문집*, 505-512.
- Abraido-Lanza, A. F., Guier, C., & Colon, R. M. (1998). Psychological thriving among Latinas with chronic illness. *Journal of Social Issues*, 54, 405-424.
- Affleck, G., & Tennen, H. (1996). Construing benefits from adversity: Adaptational significance and dispositional underpinnings. *Journal of Personality*, 64(4), 899-922.
- Ahrens, C. A., Campbell, R., Temier-Thames, K., Wasco, S., & Sefl, T. (2007). Deciding whom to tell: Expectations and outcomes of sexual assault survivors' first disclosures.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31, 38-49.
- Allen, J. (2005). *Coping with trauma: Hope through understanding*.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Publishing, Inc.
- Aldwin, C. M. (1994). Transformational coping. *Stress, coping and development*, 240-269.
- Aspinwall, L. G., Richter, L., & Hoffman III, R. R. (2001). *Understanding how optimism works: An examination of optimists' adaptive moderation of belief and behavior*. In E. C. Chang(Ed.).
- Block, J., & kremen A. M. (1996). IQ and ego-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s and seperateness, *Journal or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2), 349-361.
- Bonanno, G. A. (2004). Loss, trauma, and human resilience: Have we underestimated the human capacity to thrive after extremely aversive events? *American Psychologist*, 59, 20-28.
- Breitkopf, C. R. (2006). Coping with experience of rape.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30, 106-116.
- Buyukasik-Colak, C., Gundogdu-Akturk, E., & Bozo, O. (2012). Mediating Role of Coping in the Dispositional Optimism-Posttraumatic Growth Relation in Breast Cancer Patients. *The Journal of Psychology*, 146(5), 471-483.
- Campbell, R., Ahrens, C. E, Sefl. T., Wasco, S. M., & Baenes, H. E. (2001). Social reactions to sexual assault victim: Healing and hurtful effects on psychological and physical health outcomes. *Violence and Victims*, 16, 287-301.
- DePrince, A. P., Zurbriggen, E. L., Chu, A. T., & Smart, L. (2010). Development of the Trauma Appraisal Questionnaire. *Journal of Aggression, maltreatment & Trauma*, 19(3), 275-299.
- Foynes, M. M., & Freyd, J. J. (2012). An exploratory study evaluation responses to the disclosure of stressful life experiences as they occurred in real time. *Psychological Trauma: Theory, Research,*

- Practice, and Policy*; 5, 295-300.
- Gross, J. J., & John, O. P. (2003). Individual differences in two emotion regulation processes: implications for affect, relationships, and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5, 348-362.
- Hassija, C. M., & Gray, M. J., (2012). Negative social reactions to assault disclosure as a mediator between self-blame and posttraumatic stress symptoms among survivors of interpersonal assault.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7, 3425-3441.
- Horowitz M., Wilner N., & Alvarez W. (1997). Impact of Event Scale: a measure of subjective stress. *Psychosom Med*, 41, 209-218.
- Joseph, S & Linley, P. A. (2008). *Psychological assessment of growth following adversity: A review*(Eds). Hoboken, NJ: John Wiley & Sons, Inc.
- Joseph, S., Linley, P. A., Andrews, L., Harris, G., Howle, B., Woodward, C., & Shevlin, M. (2005). Assessing positive and negative changes in the aftermath of adversity: Psychometric evaluation of the Changes in Outlook Questionnaire. *Psychological Assessment*, 17, 70-80.
- Joseph, S., Maltby, J., Wood, A. M., Stockon, H., Hunt, N., & Regel, S. (2012a). The Psychological Well-Being—Post-Traumatic Changes Questionnaire (PWB-PTCQ): Reliability and validity. *Psychological Trauma: Theory, Research, Practice, and Policy*, 4(4), 420 - 428.
- Joseph, S., Murphy, D., & Regel, S. (2012b). An Affective-Cognitive Processing Model of Post-Traumatic Growth. *Clinical Psychology and Psychotherapy*, 19, 316-325.
- Joseph, S., Williams, R., & Yule, W. (1993). Changes in outlook following disaster: The preliminary development of a measure to assess positive and negative responses. *Journal of Traumatic Stress*, 6(2), 271-279.
- Littleton, H. L., & Breitkopf, C. R. (2006). Coping with experience of rape.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30, 106-116.
- Linley, P. A., & Joseph, S. (2004). *Toward a Theoretical foundation for positive psychology in practice*. In P. A. Linley & S. Joseph(Eds.), *Positive psychology in practice* (pp. 713-731). Hoboken, NJ: John Wiley & Sons.
- Luthar, S. S., Cicchetti, D., & Becker, B. (2000). The construct of resilience: A critical evaluation and guidelines for future work. *Child Development*, 71(3), 543-562.
- Mauss, I. B., Crystal L. C., Jennifer Y. J., & Gross, J. J. (2007) Individual difference in cognitive reappraisal. *Experimental and Psychological Responses to an Anger Provocation*, 116-124.
- McCullough, M. E., Emmons, R. A., & Tsang, J. (2002). The grateful disposition: A conceptual and empirical topography.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82(1), 112-127.
- McMillien, J. C., & Fisher, R. H. (1998). The Perceived Benefit Scales: Measuring perceived positive life changes after negative events. *Social Work Research*, 22(3), 173-187.
- Nishi, D., Matsuoka, K., & Kim, Y. (2010). Posttraumatic growth,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nd resilience of motor vehicle accident survivors. *Biopsychosocial Medicine*, 4, 1-6.
- Park, C. L., Cohen, L. H., & Murch, R. L. (1996). Assessment and prediction of stress related growth. *Journal of personality*, 64(1), 71-105.
- Park, C. L., & Helgeson, V. S. (2006). Growth following highly stressful life events: Current status and future direction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4, 791-796.
- Paulhus, D. L. (1984). Two-component models of social desirable responding. *Journal of*

-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6, 598-609.
- Regel, S., & Joseph, S. (2010). *Posttraumatic stress: The fac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Roesch S. C., Rowley A. A. (2005). Evaluating and developing a multidimensional, dispositional measure of appraisal. *J Pers Assess*, 85(2), 188-196.
- Ryff, C. D. (1989).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s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6), 1069-1081.
- Scheier, M. F., Carver, C. S., & Bridges, M. W. (1994). Distinguishing optimism from neuroticism (and trait anxiety, self-mastery, and self-esteem): a reevaluation of the Life Orientation Tes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6), 1063-1078.
- Spielberger C. D. (1983). State-Trait Anxiety Inventory(Form Y) Manual. Redwood City CA: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 Tedeschi, R. G., & Calhoun, L. G. (1996). The posttraumatic growth inventory: Measuring the positive legacy of trauma. *Journal of traumatic stress*, 9(3): 455-471.
- Tedeschi, R. G., & Calhoun, L., G. (2004). Posttraumatic growth: Conceptual foundation and empirical evidence. *Psychological Inquiry*, 15, 1-18.
- Ullman, S. E. (2000). Psychometric Characteristics of the social reactions questionnaire.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4, 257-271.
- Ullman, S. E. (2007). Relationship to perpetrator, disclosure, social reactions, and PTSD symptoms in child sexual abuse survivors, *Journal of Child Sexual Abuse: Research, Treatment & Program Innovations victims, Survivors, & Offenders*, 16, 19-36.
- Weiss D. S., & Marmar C. R. (1997) The impact of Event Scale-Revised. *Assessing psychological trauma and PTSD(Eds)*. New York: Guilford Press, 399-411.
- Weiss, T. (2002). Posttraumatic growth in women with breast cancer and their husbands: An intersubjective validation study. *Journal of Psychosocial Oncology*, 20, 65-80.
- Wilson, J. P., & Keane, T. M. (2004). *Assessing Psychological Trauma and PTSD*. 2nd ed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Woodward, C., & Joseph, S. (2003). Positive change processes and post traumatic growth in people who have experienced childhood abuse: Understanding vehicles of change. *Psychology and Psychotherapy: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76, 267-283.
- 원고접수일: 2015년 9월 23일
 논문심사일: 2015년 10월 28일
 게재결정일: 2016년 2월 2일

The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Psychological Well-Being-Post- Traumatic Changes Questionnaire

A-Reum, Jeong Jong-Nam, Kim
Department of Educational Psychology
Seoul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validate the Korean version of the Psychological Well-Being-Post-Traumatic Changes Questionnaire(PWB-PTCQ) with a Korean adult sample. This study also examined the relative influence of variables of changes in psychological well-being following a traumatic event. To achieve this purpose, this study conducts a research through the following procedures. First, eighteen items originally developed by Regal and Joseph and validated by Joseph et al(2012a), went through a translation and back-translation procedure to be adapted prior to data collection. Second, in the preliminary study, item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and exploratory factor analysis(EFA) were conducted in a 125 adult sample who had experienced traumatic events. Third, in the confirmatory factor analysis(CFA) an adult sample of 306 who had experienced traumatic events different from subjects were recruited for EFA. The result of the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indicated that PWB-PTCQ consisted of 2 factors and sixteen. Fourth, Statistical analyses through the concurrent, convergent and discriminant validity test revealed that the PWB-PTCQ was a reliable and valid measure for changes in psychological well-being following a traumatic event of Korean adults. Concurrent validity was good with PTGI. Convergent validity with optimism, gratitude, cognitive reappraisal were verified respectively showing significantly positive correlation. Also, discriminant validity with distress after

experiencing trauma showed a significantly negative correlation. In the next study of analysis on PWB-PTCQ related variables, the study examined the relative influence of variables of changes in psychological well-being following a traumatic event in a 222 adult sample who had experienced traumatic events. At first, changes in psychological well-being following a traumatic event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self-resilience and positive reaction to trauma disclosures, and showed a negative correlation with a negative reaction to trauma disclosures. Next, analysis of the variable affection the changes in psychological well-being following a traumatic event, the variable that exerted the most effect on changes in psychological well-being following a traumatic event was self-resilience followed by a positive reaction to trauma disclosures.

Keywords: *psychological well-Being-post-traumatic changes, post traumatic growth, validation, ego resilience, social response for disclosure of traumatic experiences*

부 록

한국판 PWB-PTCQ 문항

* 현재의 자신에 대해 스스로 어떻게 느끼는지를 생각해보십시오. 그리고 난 뒤 외상 사건의 결과로 인해 자신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다음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정도에 O표 해주십시오.

번호	문항	사건 전에 훨씬 더 그랬다	사건 전에 조금 더 그랬다	사건 전과 현재가 비슷하다	사건 전에 비해 현재가 조금 더 그렇다	사건 전에 비해 현재가 훨씬 더 그렇다
1	나는 내 생각에 확신이 있다.	1	2	3	4	5
2	나는 삶의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다.	1	2	3	4	5
3	나는 친밀하고 강한 유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1	2	3	4	5
4	나는 내 삶에 대한 통제감이 있다고 느낀다.	1	2	3	4	5
5	나는 나에게 도전이 되는 새로운 경험에 개방적이다.	1	2	3	4	5
6	나는 나의 강점과 약점을 포함해서 나 자신을 수용한다.	1	2	3	4	5
7	내 삶은 의미가 있다.	1	2	3	4	5
8	나는 인정 많고 베풀 줄 아는 사람이다.	1	2	3	4	5
9	나는 내 삶에서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한다.	1	2	3	4	5
10	나는 항상 내 자신에 대해 알아가려고 노력한다.	1	2	3	4	5
11	나는 나 자신을 존중한다.	1	2	3	4	5
12	나는 나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다른 사람과 생각이 다르더라도 나의 입장을 유지할 것이다.	1	2	3	4	5
13	나의 삶은 가치가 있고 그 안에서 내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느낀다.	1	2	3	4	5
14	내 삶에서 나를 아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감사한다.	1	2	3	4	5
15	나는 삶이 나에게 준 과업에 잘 대처할 수 있다.	1	2	3	4	5
16	나는 나의 미래에 대해 희망적이며 새로운 가능성들을 기대한다.	1	2	3	4	5

* 1, 2, 3, 4, 5, 7 : 인생관 및 대인관계의 변화

* 6, 8, 9, 10, 11, 12, 13, 14, 15, 16 : 자신과 세상에 대한 변화